



12면

도내 최대규모 신라 무덤군 확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6월 5일 수요일 (음 4월 29일) 제351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모악산, 전주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우범기 전주시장, 모악산  
관광지 조성 추진계획 발표

전주지역 최초 공공 캠핑장  
액티비티 체험공간 등 조성  
2027년까지 618여억 투입

전주 시민들의 삶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산' 모악산이 전주지역 최초의 공공 캠핑장과 감성 카페, 행복가든, 액티비티 체험공간 등을 갖춘 관광지로 재창조된다. <관련기사 16면>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중인동 모악산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현장 브리핑을 열고 "전주 시민의 휴식처인 모악산을 전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전주는 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총 618억 원을 투입해 △캠핑존(3만3000㎡) △감성존(1만6700㎡) △놀고랜드존(3만3400㎡) 등 3개의 핵심 공간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확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산로 정비 △우회도로 개설 △무장애 나눔길 등 5개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캠핑 관광 수요에 대응해 모악산에 전주지역 최초의 공공형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캠핑존에는 자연 속에서 숙박할 수 있는 트리하우스와 글램핑,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종류의 캠핑 숙박시설이 도입되고, 캠핑장 이용객을 위한 정원과 잔디광장, 레포츠시설, 주차장(108면)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캠핑존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4일 전주시 중인동 모악산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브리핑을 열고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감성존도 만든다. 구체적으로 도계 소류지를 활용한 수변 테크길과 담십을 조성해 물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목공예조형물과 꽃밭, 정원, 경관계단, 포토존과 주차장(93면), 카페 등을 조성한다.

여기에 시는 감성존의 북측으로 자연을 만끽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인 놀고랜드존도 만들기로 했다. 놀고랜드존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야외놀이터와 함께 미로 정원 등 목공예조형물, 미디어파사드 광장, 요정마을, 풍차 등이 조성돼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시는 놀고랜드존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광장, 주차장(132면)도 함

께 조성하는 한편, 3개의 공간이 상호 연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했다.

동시에 시는 모악산 진입도로 확장(중인초등학교~중인동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120대 규모) 조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이동 동선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등산로 정비(급곡사 능선길 등 9개 노선)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중인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기로 했다.

시는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한 후 오는 2025년부터 설계와 토지 보상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와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구도심 전주한옥마을과 완산방커, 동서부권 호남제일문 일대 복합스포츠타운 등과 맞물려 전주 관광 외연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이 전주 미래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획기적인 한 걸음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여가를 누리고, 대자연 속에서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전주 서부권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익희 기자

6월 6일 현충일로  
신문은 7일 발행합니다.

## 도내 특수교육 분야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

전북자치도교육청, 6월 한 달동안  
'2024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월 한 달간 '2024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사진 4면>

올해는 403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20명에 비해 8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4~5일 이틀간 전북미래교육연구원(전주)에서 진행되는 전국 예산대회는 아래한글, 로봇코딩 등 12개 종목의 정보경진대회와, 닌텐도스위치 배구 등 8개 종목의 e스포츠 대회로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AR·VR 체험 등 가상 체험학습이 가능한 찾아가는 상상체험버스, 드론 축구 등 다양한 에듀테크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어 한컴타자와 카트라이더 종목으로 이뤄지는 지역대회가 28일 까지 특수학교 및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펼쳐진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실감형 콘텐츠 전시 및 미래형 정보교육실을 구축했고, AI로봇·스마트팜·미

래형 키오스크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교구를 확충했다.

또 특수교육 분야 에듀테크 연구회는 미래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보완대책 의사소통기기 활용교육, 수준별 코딩교육, 키오스크 및 서빙 로봇 활용 미래형 직업교육 등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연구 등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주은화학교, 올해 다솜학교에 인공지능 기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전주은화학교를 도 지정 연구학교로 운영, 인공지능 기반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데 장애학생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대상 AI 및 메타버스 활용 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다국적기업으로 발돋움한다

성일하이텍, 새만금 2공구에 제3공장 준공  
이차전지 원자재 안정 생산 전진기지 마련

전북에 뿌리내린 국내 최고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이 다국적기업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 <관련사진 3면>

성일하이텍이 새만금 2공구에 제3공장 건립을 마치면서 이차전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면서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에서 성일하이텍 및 에스이머티리얼즈의 새만금 제3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국주영은 도의회의장, 세르테하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 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비롯해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이사, 이경열 에스이머티리얼즈 대표 등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성일하이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2만3,000평 부지에 1,300억원을 투입해 제3공장을 건립해 13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성일하이텍의 자회사인 에스이머티리얼즈(한중합작사)는 제3공장에 바로 인접한 7천평 부지에 450억원을 들여 8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엔 완공된 제3공장(하이드로센터)은 배터리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스크랩과 폐배터리를 분리·분쇄해 만든 가루형태의 블랙매스를 원료로 습식제련을 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고순도의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성일하이텍은 기존 1·2공장과 이번 준공한 3공장 생산량을 모두 합산하면 전기차 약 40만대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공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차전지 한중협력의 결실인 에스이머티리얼즈는 배터리 제조용

리튬 화합물을 생산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원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새만금에 이차전지 한중합작 기업의 투자 이행과 신규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유가금속을 이차전지 제조사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국내 최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성일하이텍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 투자를 결정하고, 중국 칭다오 민간야금기계와 합작해 자회사 에스이머티리얼즈를 지난 2022년 설립했다.

기업 관계자는 "이차전지 재활용 양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상용화하는데 성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에 건립된 신규 공장에서 대규모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수 있음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재활용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 최고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성일하이텍이 글로벌 ESG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전북자치도 함께 성공을 이루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내 유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괄공정을 보유한 성일하이텍의 제3공장 준공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성일하이텍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군산=이재춘 기자

##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장정복 의원



부의장  
이종섭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최한주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관호 의원



한국회 의원



김남수 의원



유경자 의원

장수군의회  
JANGSU COUNTY COUNCIL